

제42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 제 3분과(대장성 소관)회의록(속기) 제1회  
1920년 2월 2일 오후 1시 40분 개의  
출석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의원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 의원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의원  
히로세 진시(廣瀬鎮之) 의원  
미즈치 쥬조(三土忠造) 의원  
아나미즈 요시치(穴水要七) 의원  
하마구치 오사치(浜口雄幸) 의원  
마치다 쥬지(町田忠治) 의원  
가토 마사노스케(加藤政之助) 의원  
가토 사다키치(加藤定吉) 의원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오가와 교타로(小川郷太郎) 의원

兼務

다카오카 유이치로(高岡唯一郎) 의원  
오카다 사카에(岡田榮) 의원  
하야미 세이지(早速整爾) 의원  
야마지 조이치(山道襄一) 의원  
요코야마 긴타로(横山金太郎) 의원  
세키 와치(關和知) 의원  
고니시 가즈(小西和) 의원  
가와사키 가쓰(川崎克) 의원  
이누카이 켄타로(犬飼源太郎) 의원  
다케이치 쇼이치(武市彰一) 의원  
다모기 게이키치(賴母木桂吉) 의원

출석국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내무대신 도쿄나미 다케지로(床次竹二郎) 위원  
대장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위원

출석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위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위원  
조선총독부 재무국장 고우치야마 락쿠산(河内山樂三)  
조선총독부 참사관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대만총독부 총무국장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대만총독부 재무국장 阿部滂

관동청 사무총장 스기야마 시고로(杉山四五郎)  
華太廳장관 나가이 긴지로(永井金次郎)  
大藏省次官 가미노 가쓰노스케(神野勝之助)  
대장성 주세국장 니시노 하지메(西野元)  
대장성 이재국장 모리 순로쿠(森俊六)  
대장성 은행국장 오노 기이치(小野義一)  
대장성 참서관 후지이 사다노부(藤井眞信)  
대장서기관 야스쿠라 구마사부로(保倉熊三郎)  
대장서기관 사사키 겐이치로(佐々木謙一郎)  
대장서기관 가와타 이사오(河田烈)  
대장서기관 오타 가타로(太田嘉太郎)  
전매국장관 노나카 기요시(野中清)

오늘 회의에 오른 의안은 다음과 같다.

(제1호) 1920년도 세입세출총예산추가안(대장성소관)  
(특제1호) 1920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총예산추가안(대장성소관)  
예산외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을 필요로 하는 건(대장성소관)

(중략)

○ 야마지 조이치(山道襄一) 의원

질문의 범위를 위원장께 말씀해 두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의 예산에 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시설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당국자로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식민지 통치에 관한 근본사항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선총독부 당국자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내각과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총리대신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 총리대신을 대신하여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의 출석을 바랍니다.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지금 조선총독이 나와 계시는데, 조선총독의 답변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까?

○ 야마지 조이치(山道襄一) 의원

만약 조선총독이 총리대신이 답변하신 것과 같은 책임으로 답변해 주시면 저는 조선총독으로도 만족합니다.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일단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사이토(齋藤) 정부위원

조선총독부 소관의 일이라면 물론 답변합니다만, 그 외의 일이 되면 저로는 만족하실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마지 의원에게 상담합니다만, 일단 질문하시고 조선총독의 답변을 듣고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총리대신의 출석을 요청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야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그렇다면 내무대신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조선에 관해서입니까?
- 야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그렇습니다.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 야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만약 가능하다면 내무대신이 출석하셔서 조선총독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야마지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무대신에게 말씀해 두었습니다만, 소관 외의 일이라고 생각되어 척식장관이 답변하면 어떠냐 하는...
- 야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무대신은 저번 귀족원에서 내각을 대표해서 조선문제 일부에 속하는 - 여운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각을 대표해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다소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대신이 출석하시면 내각을 대표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출석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 미즈치 슈조(三土忠造) 의원  
야마지 의원에게 상담합니다. 내무대신이 여운형 문제에 관계하고 있는 한 사람이니 소관 여하에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각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
- 야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그것으로 좋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의사 진행에 대해서 - 총리대신 혹은 내무대신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역시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이 분과회는 분과회로서 쓸데없이 기다리지 말고 대장대신이 다행히 출석해 계시니 이쪽을 진행시키고 기회가 있을 때에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가와사키 가쓰(川崎克) 의원

지금 스즈키 의원의 이야기대로 조선총독이 출석하셨으니 저는 통고대로 조선총독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지금 내무대신과 교섭하고 있는데 그 쪽 분과회의 상황으로 빠져 나올 수 없으니, 아마지 의원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스즈키 의원의 발의대로 다른 방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그러면 저는 조선총독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좋습니다.

○ 아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저는 이번 조선총독부 예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시고 9월 3일 부하를 모아서 훈시하셨던 훈시 및 9월 10일에 발표하신 유고 등도 보았습니다. 훈시에서도 유고에서도 대체의 정신,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이토 총독 개인의 방침이 아니라 작년 영단으로 현 내각이 조선총독 이하 많은 관리를 경질하고 제도 및 규칙 등을 크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정신이 여기에 발로되어 있고, 일본의 對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이 여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보았는데, 많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통치상에서 저는 많은 의혹을 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예산 심의를 하는데 먼저 전제로서 의혹을 해소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두 개로 나눠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일시동인의 선언 및 방침은 사이토 총독의 인격으로서 매우 훌륭한 것이고 많은 찬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조선에 있는 1500만인가 1200만 조선민족에 대해서 상하에 대한 대우에서, 모든 면에서 일시동인으로 한다고 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조선인이 가장 많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법 및 행정에 관여하는 대사건, 이번에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의원에서는 아직 세키(關) 의원만이 질문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여운형 사건입니다. 총리대신은 세키 의원에게 이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상해임시정부는 불면 날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6일에 조선재판소에 기소된 대한독립청년외국단 및 대한독립애국부인회원, 이들에 대한 총독부 관헌의 범죄 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원문 가운데 앞부분에 실린 “올 봄 망동에 소요를 거듭하는 조선인 불령사건은 그 후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궤멸과 함께” 운운, 제일 마지막에 “장차 근절되는 상황이다”라는 총독부의 문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더라도 작년 이래 조선의 대소동이 상해임시정부가 궤멸되었기 때문에 이미 근절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이상은 총리대신이 상해임시정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불면 날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작년 4월 10일 설립되었고 그들이 청하는 상해임시정부 제1회 내각의 외무총장에 취임한 여운형은, 6월 미국에서 안창호가 상해로 와서 내각을 개조해서 김규식이 외무총

장이 되고 차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김규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고 상해에 돌아 오지 않아서 사실상 외무총장인 여운형이 작년 조선소동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총독부의 문서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귀족원이나 중의원에서 정부가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총리대신은 상세히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세키 의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작년 8월 이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여운형이 단지 막연하게 와서 회견을 요구했으므로 여운형을 만났다고 매우 막연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여운형 쪽에서 정부에 회견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이 점은 정부의 지금까지 답변에서는 확실하지 않는데, 저는 먼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여운형이라는 자가 온 것은 정부에 교섭 없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불러들인 것입니까? 이것을 첫 번째로 듣고 싶습니다. 정부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면 여운형이 동경에 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총독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전 총독 하세가와(長谷川) 대장 시절에 여운형을 경성에 불러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총독부가 많은 돈을 사용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후 총독이 바뀌고 (업무)인계가 있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만, 전후 관계에서 보면 그 후 총독부에서는 역시 여운형을 경성에 부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저는 추정할 수 있는 몇몇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작년 여름 이후 현재의 총독이 이어받아 여운형을 경성에 부르기 위해 상당한 돈을 사용하셨습니다. 정부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여운형이 작년 11월 16일 나가사키에 상륙한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답변하여 부른 것인지 부르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조선총독이 경성에 부르도록 노력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금전 및 목적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 사이토(齋藤) 정부위원

지금 야마지 의원의 질문 가운데 총리대신 그 외 정부가 과거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질문하신 여운형 문제가 전 총독 이래의 계획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계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특별히 여운형을 조선에 부르는 것을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여운형에 한하지 않는데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무리는 조선에 돌아오면 의견교환을 하거나 제가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양해시키고자 합니다. 원래 조선총독부로서는 독립이라든지 조선을 제국에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치방침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성의를 알리고 해서 오는 자는 굳이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계획을 세워서 많은 돈을 사용한 적은 없으니 이것만을 말씀드립니다.

#### ○ 야마지 조이치(山道襄一) 의원

총독의 그러한 답변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세가와 전 총독이 재임할 때부터 여운형을 불러들일 것을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시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이토 총독의 답변이라면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중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여운형의 통역으로 여운형의 요구에 의해 조선총독부가 하의도에 거주를 제한하고 있는 장덕수를 행정가치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해제도 없이 - 이것도 부인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상당한 여비를 지불해서 여운형 일행

과 함께 동경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획으로 보내게 되었습니까? 행정처분을 해제하지 않고 보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장덕수가 동경에서 일단 조선에 가서 나중에 말했습니다만, 다시 시모노세키에 장덕수가 출장해서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경성에 제가 갔을 때 장덕수는 저를 찾아와서 그 때 장덕수가 말한 것은 “저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4일 향리에 있으면 저의 계엄도 총독이 해제해 주시기 때문에 돌아가 있으라고 하니 지금 고향에 돌아갑니다”, 저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돌아간 본인의 말에 의하면 거주제한의 해제도 없이 동경에 오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이일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이 질문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덕수를 일본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처음 총독부는 이것을 거절했다, 특히 들은 바에 의하면 여운형을 소개한 후지타 규고(藤田九阜)라는 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평판이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의 부하인 모 통역관에게 전보를 쳐서 장덕수를 데리고 동경에 오는 것을 10월에 모씨에게 말했는데 총독부는 이것을 거절했다, 그에 대해서 척식국장관이 전보를 쳐서 장덕수를 동경에 보내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총독부가 거절했다, 그렇다고 하면 상해에 있는 육군성에서 파견된 사토(佐藤) - 이름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라는 육군부관이 육군 쪽 방면에 전보를 쳐서 총독부에 육군의 유력한 지위에 있는 무관에게 의뢰해서 여운형이 동경에 가게 되었는데, 만약 장덕수가 가지 않으면 여운형이 동경에 가는 것을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때 양보해서 장덕수를 보내달라고 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의 경위에 대해서는 요컨대 잠시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사이토 총독은 육군 측의 간절한 희망을 묵시할 수 없어 장덕수를 해제하지 않은 채로 두고 여비를 지급하고 일행과 함께 가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경위를 통해서 척식국과 조선총독부, 육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보를 왕복하고 마지막에 여운형, 장덕수가 불온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보장한다고 해서 장덕수를 일본에 보내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경위, 전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민 일반의 의혹을 풀어 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이토(齋藤) 정부위원

지금 장덕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거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척식국장관으로부터 통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자를 상경시키라고 했는데, 그 때에는 아직 거주 제한에 대해서 총독부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했는데 본인의 상황도 있어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교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불러서 거주 제한 기간도 가다오기 때문에 허가해도 지장이 없다, 승낙해도 지장이 없다고 해서 동경에 보냈습니다. 그 경우에도 고등경찰과장이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주 제한을 해소한 것입니다. 특별히 육군 측이 저한테 어떠한 요청을 해온 것은 아닙니다.

○ 야마지 조이치(山道襄一) 의원

저는 사이토 총독의 인격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독께 사실을 들어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 개인을 위해 참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육군 측의 간절한 희망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물론 그 전보는 관보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해에 있는 사토 소좌가 전보를 쳐서 조선에 있는 가장 유력한 육군이 육군을 대표해서 총독부에 교섭해서 언론까지 보장하여 동경에 장덕수를 불러들였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이토 총독에게 경의를 표하기 때문에 거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선총독에게 물겠습니다. 작년 8월의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월의 제령 제7조의 위반자로서 지금 현재 의심중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소된 대한독립청년외교단의 안재홍 - 특히 이 안재홍이 작년 8월 당시 상해에 임시정부라고 칭하는 것의 국무총리로 미국에 있는 이승만에 대해서 건백서를 보냈습니다. 이들 비밀결사의 건백서 제4조에 일본정부에 외교위원을 파견해서 국가 독립을 정면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1개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해에 있는 자로부터 얻은 사진입니다. 저는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 총독부 기록이라고 판단되는 문서가 하나 있으니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서 가운데 외교청년단을 검거해서 조사한 기록 가운데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승만은 (상해에) 없기 때문에 이승만의 대리인으로 내무총장으로 있는 안창호가 9월 8일 - 대한민국 원년 9월 8일 날짜로 안재홍이 제출한 건백서에 대해서 현재 그자가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그 제4조에는 일본에 외교원을 파견해야 한다는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이 회답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것은 저보다도 이미 당국이 잘 조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총독시대에 여운형을 불러들일 계획으로 - 현재의 총독은 모르신다고 하니 저는 현재 당국자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 총독시대에 경무장관에게 상당한 돈을 지출해서 여운형을 불러들이기 위해 사람을 파견해서 여러 모로 진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운형은 올지 오지 않을지 돈을 지출했습니다만, 그 후에 전혀 요령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작년 장덕수를 폭동 관계자로서 조사할 때에 누군가 동경과 상해와 경성 사이의 연락을 취했다는 것을 그 때 탐정을 붙여서 조사해서 자백시켰습니다. 이어서 5, 6월에 상해의 임시내각이 경질되어 그 때에 외무총장이었던 여운형이 외무차장으로 좌천되었기 때문에 그 때에 그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매우 반감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장덕수가 말해 불러들이려고 했는데, 7,8월이 되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돈은 받았습시다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8월이 되어서 조선의 비밀결사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하는 자를 대표해서 청년외교단 총무 안재홍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에 외교원을 파견하고 국가의 독립을 정면에서 요구할 것”이라는 건백서를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에게 보냈습니다. 9월 8일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상해에는 없었기 때문에 수석총장이라고 할 내무총장 안재홍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에 정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 건의가납서(建議嘉納書)를 보내왔습니다. 즉 8일에 조선에는 일본에 대표자를 조속히 보낸다고 하는 답장을 보내고 9월 하순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간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8월에 그러한 답장을 보내고 9월 중순에 갑자기 후지타 규고(藤田九臯)라는 자가 상해에서 동경에 올라왔습니다. 동경에 와서 모 대신 - 모 대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육군대신과 면담하고 여운순(呂運旬)을 이쪽에 불러들이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것 조회했다는 것은 기자동맹회에서 조사한 것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척식장관이 새롭게 여운형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여운형과 함께 온 와타세(渡瀨)라고 하는 목사의 말에 의하면 “동경에 오기 위해 여운형에게 정부에서 신분보장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었다고, 즉 여운형은 자신이 가면 먼저 신분보장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해서 그 보증을 제일 먼저 신청했습니다. 보장을 받고 동경에 가면 자신의 신분이 외교차장이므로 일반 조선인 중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기뻐한다, 조선인이 보면 이 비밀결사, 상해임시정부의 사람을 일본정부가 대표자로서 인견

(引見)하게 된다, 그래서 일면에는 그가 일본정부와 회견했다고 하는 것은 상해임시정부 세력이 크다는 것을 조선인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기세를 올리기 위한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내각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상상이 아닙니다. 일반 인민은 그가 동경에 오는 것은 일본정부에 독립을 교섭하러 가는 것이니 지방운동을 잠시 연기하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민은 독립은 가까워졌다, 상해임시정부의 대표자가 일본정부와 외교담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저번 - 작년 말에 갔을 때 자동차 안에서 만난 정 모라는 조선청년은 저를 향해서 말하기를 헌정회는 여운형 문제를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본정부는 아주 개방되어 있습니다, 상해임시정부 대표자를 동경에 불러들여 정부대표자와 회견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인의 독립 목적도 달성되고 일본정부가 얼마나 관대한지를 우리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 모라는 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그의 주소, 성명을 적어 왔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선통치상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여운형이 11월 28일에 제국호텔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선전을 했습니다. 이 일은 동경 신문은 물론 지방 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29일에 사이토 총독은 하라 총리대신에게 원래 장덕수를 동경에 불러들일 때 장덕수의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한다고 하여 장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보면 고가(古賀) 장관에게 건넨 연설 원고는 전혀 달라 배신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조선통치를 맡고 있는 우리들이 조선을 통치해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 총리대신으로부터 어떤 대답이 있었는가 하면 이번 일에 대해서는 많은 실수가 있었다, 척식국장관에게 장래 식민지 고등정책에 대해서는 결코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이번 일은 양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이토 총독이 부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건을 보더라도 조선인이 통치상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이토 총독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이토(齋藤) 정부위원

지금의 질문은 상세한 조사가 있을 것이지만, 여운형이 제국호텔에서 신문기자와 회견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 그대로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조선에서는 물론 상당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할 것입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부적절한 일이 있으면 이쪽에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또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조선에도 오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끝냈습니다. 총리대신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니다. 누군가가 잘 이야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마지 조이치(山道襄一) 의원

저는 거듭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 다음의 질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누군가가 잘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로부터 적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로부터 결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답변이 가능한 범위는 1개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여운형이 법률상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사실을 들어 답변을 요구합니다. 설사 여운형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저는 여운형이 매우 불온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독은 작년 12월 중반 경에 오사카의 아사히신문 기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임하면 과거처럼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독립을 선전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저의 항의를 받은 후의 일입니다. 이것도 아사히신문기자의 오해 혹은 날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먼저 저는 이것보다도 중대하고 불온당한 일에 대해서 동시에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서류 안에 있습니다. 작년 5월경부터 상해에 임시정부를 만들어- 조선인 애국부인회원을 선동했습니다. 이 부인회원 등은 작년 11월 검거되어 12월 26일 제령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이 부인회원을 선동한 것이 작년 5월경으로 당시 외교총장은 여운형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조선총독부의 검찰관에 이송된 범죄인을 교사했다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한 자입니다. 이 여운형이 동경에서 여러 대우를 받고 들은 바에 의하면 관비로 여비를 마련하고 체재비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작년 봄 이래 상해 거류민단 그 외 청년단이 일으킨 폭동의 장본인입니다. 그 폭동에 참가한 자는 40만 명 있습니다. 그 40만 명 가운데 검거된 자가 2만8천7백54명, 그 가운데 불기소가 된 자가 1만8천2백9십5명입니다. 기소된 자가 9천2백8십9명입니다. 대부분은 현재도 공소되거나 옥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296명은 조헌문란(朝憲紊亂) 죄입니다. 그러한 9천명의 범죄자를 내고 특히 296명은 상해임시정부가 기도한 폭동에 참가했기 때문에 조헌문란죄의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폭동의 장본인이 여운형입니다. 그리고 그가 동경에서 환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만약 조선에 있는 자 및 동경에 있는 조선인이 듣게 되면 일본의 사법권은 매우 불공평하다, 총독이 말하는 것처럼 일시동인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독부의 기관신문 경성일보에 작년 12월에 논설을 실어 왜 일본정부는 여운형을 구속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헌문란의 사실을 들어 논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관신문인 경성일보에 총독은 어떠한 반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교사되거나 그로 인해 구속된 자가 몇 만 명이 되고 조헌문란의 중죄에 처해진 자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본인인 여운형은 우대받고 환대받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시동인이라는 최초의 방침을 취하고 조선에 일시동인의 사상이 전파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이토(齋藤) 정부위원

지금의 질문, 신문가사에 대해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신문기자에게도 대답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지고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잘 조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론하신 장본인인 여운형이라는 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장본인이라고는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장부 그 외 오랜 서류를 보면 독립정부 초기에 이름이 오른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독립운동의 장본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운형은 남경의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상해에서는 서양인 사이에 신용이 있고 외국인 등과 교제가 넓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처음에 외교를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서류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본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의견으로 추론하고 계시니 이

점은 제가 잘 조사해보지 않으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시동인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처음도 지금도 변함없고 역시 일시동인의 실행에 힘써 지금 광범위한 방면에 걸쳐서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시동인 운운은 여기에서 논단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시동인에 대해서는 취지가 철저히 해가지 많은 시일을 필요하고 여러 시설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절차도 밟지 않으면 일시동인은 발현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짜 시작이고 이렇다 할 성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장래 충분히 힘써서 이 취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행위로 일시동인의 문제를 이곳에서 논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일시동인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지 반한다는지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이쯤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일이 지나지 않으면 다소의 성적을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야마지 조이치(山道襄一) 의원

저는 총독이 가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끌어와서는 아무리 성심성의로 통치를 담당해도 상당한 성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대신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이 적당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날로 미루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금 길어 집니다만, 여운형이 작년인가 수년 전인가 그가 일본에 대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대여섯 가지의 사실을 여기에서 들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는 이것을 인정할지 부정할지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상의 견해를 어떻게 할지 저의 법률상의 견해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조헌문란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조선총독이 작년 4월 15일 발령하신 제령 제7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하는 제령입니다.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안병, 질서를 해치는 자 또는 교사한 자에게는 외국에 있는 자도 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1918년 12월경부터 상해에 있는 불령선인 등이 모여서 조선독립의 음모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해재류조선인거류민단장 및 청년회장인 여운형과 신규식이 서로 공모해서 조 모라는 자를 동경에 보내서 동경에 있는 조선유학생을 선동해서 작년 2월 6일부터 3일간 간다(神田)의 청년회관에 모여서 그들은 불온한 선언을 결의했습니다. 그 결의 가운데에는 놀랄만한 불온한 문장이 있다는 것은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일본에 대해서 영원한 혈전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조선의 독립을 기도하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식과 여운형이 조선인을 교사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조선에 누군가를 파견했는가 하면 선우혁(鮮于赫)을 파견했습니다. 선천이나 평양 등 유력한 기독교도가 다수 있는 곳에 파견해서 그들은 천도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박희도가 매우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박희도를 설득하기 위해 그들은 천도교, 불교 등과 제휴해서 작년 3월 1일 경성 그 외 7개소 등에서 대폭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해에서 온 자의 교사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번에 여운형이 제국호텔에서 신문기자에게도 말했는데, 그들은 파리의 월슨을 비롯한 그 밖의 강화위원에게 조선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온한 행동, 독립운동에 착수한 것은 여운형이 장본인이라는 것은 저는 부인하지 않는 데, 이것을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 임시정부라는 것을 만들어 헌법과 형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형법은 애들 장난과 비슷합니다. 저번에 신일본주의를 설파한 민원식에 대해서 상해정부는 사형을 선고하

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애들 장난이라고 하면 그만입니다만, 그들은 헌법을 제정하고 형법을 정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은 조헌민란(朝憲紊亂)이라는 문제를 떼어놓고라도 제령 제7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를 작년 4월 10일에 만들고, 이것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성가신 일이 있었는데, 결국 프랑스 조계에 두기로 하고 프랑스 관헌과 교섭한 것도, 중국의 배일파와 연락을 취한 것도, 상해에 있는 각 신문을 조정하는 것도 여운형입니다. 그 공로로 제1회 내각에서 그는 시무총장(時務總長)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과연 법률상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세 번째로 작년 3월경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는 상인이 동맹해서 폐점했다는 것은 아시는 대로입니다. 특히 총독이 작년 9월 1일 조선에 부임할 당시는 경성에서 상인이 동맹해서 폐점하였습니다. 또 10월 중에도 동맹해서 폐점했습니다. 총독부는 개점하지 않으면 경찰력에 의해 구인해서라도 개점시킨다고 하고 매우 진력했기 때문에 겨우 개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냐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상해임시정부가 이것을 교사하는 문서를 보내고 상해임시정부로부터 파견된 자가 상인 등을 협박해서 만약 동맹폐점하지 않으면 너의 집에 불을 지른단다 타살한다고 해서 폐점시켜, 그렇게 해서 작은 가게는 곤란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창구로 매일 얼마의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조선독립을 위해 그들이 금전을 주고 유혹하거나 협박해서 상인을 동맹폐점시킨 것은 명백히 재산에 대한 폭행, 협박이 아닙니까? 내란죄의 폭행, 협박은 인명에 대한 것과 재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의 행위는 조선독립이라는 조헌문란을 목적으로 재산에 대한 도당을 조직해서 한 규박(窺迫), 폭행은 아니지만, 이 점에서도 상해임시정부가 수모자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 정부의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여운형이 이것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십니까?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은 작년 4월 10일 여운형이 제1회 임시정부를 만들 때에 미국에 있는 국무총리 이승만 그리고 군무총장 이동휘 - 이 자는 일본의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등이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혹은 니코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불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외무대신이 연설하신 시베리아 출병을 철병할 수 없는 것도 이 니코리스크 방면에 있는 십 수만의 불령선인 때문이고 불온한 조선인의 수령이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에 있는 이동휘가 아닙니까? 이 이동휘가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이 된 당시에 훈춘방면에서 조선 국경방면, 혹은 간도방면을 항상 위협하고 있는 홍범도(원문은 洪範斗로 되어 있음), 이 홍범도는 상해임시정부의 교통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온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의 독립을 선동하는 자와 함께 상해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있는 여운형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상의 죄가 없다고 관정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 다음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총독부는 발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30일을 기해서 조선에 대폭동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빨리 눈치 채서 평안북도 방면에서 수사를 했는데, 불령선인은 집에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인순사의 가택수사를 했을 때 가택에 무기를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순사가 불령의 무리로부터 매수된 결과라는 것이 알려져서 안동현 교통부를 거쳐서 보내 온 것 - 기막을 통하고 있는 간도방면에서 보내온 자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10월 10일에 대폭동을 일으키는 계획을 부인하시는지 아닌지 이것에 관계하는 여운형이 법률상 죄가 없다고 판정하십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은 종종 조서 안에 쓰여 있는데, 주문한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상해임시정부의 재무총장, 대장대신이라고 합니다. 또 최재형(崔在亨)이라는 자가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애국금수합원신표(愛國金收合員信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면장(免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옛 조선의 국기를 교차해서 아래에 어떤 문구를 그 안에 썼는가 하면, 그 문구 안에 “神佑와 민의에 의해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2천만 국민에게 고한다. 우리 반만년 이래의 조국으로 하여금 억만대 후손에게 자유의 낙원을 만들고 국토를 광복하기 위해 외교비 및 군사비를 만드는데 진력해야 한다. 따라서 000을 00도 애국금수함원으로 파견한다. 금액의 다소는 묻지 않는다. 당원에 교부해서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선의 2천만 국민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비의 조달을 위해 이 신표를 내고 있습니다. 군사비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에 대해서 조선독립을 위해 군용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자가 총독부의 조서에 의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제령 위반으로 검거되어 있고 이병철(李秉澈)처럼 많은 돈을 모아 외교청년단원을 상해에 보내고 애국부인회도 마찬가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총독부가 조사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동현을 거쳐서 상해정부에 많은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5,6인 신표를 휴대하고 조선 부호의 집에 들어가 얼마의 돈은 내라고 하고 모집에 응하지 않아 살해된 자도 있습니다.

요사이 요로즈조호(萬朝報)에 실려 있는데, 평안북도에서 돈을 모집한 자가 있었습니다. 군사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령위반으로 십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해지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운형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상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총독부가 발표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9월 25일자로 같은 해 12월 3일에 총독부가 발표해서 12월 4일 경성의 신문, 그 외의 전보에 의해서 일본의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운형 외 8명이 서명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면에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앞부분은 생략하고 “시국에 관한 대표자를 국제연맹회에 파견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는 한국 목사 1명, 선교사 1명 및 재외한국인 목사 1명, 총 3명으로 시국 상황을 선전하고 일반 신도의 신덕(信德)을 배양하기 위해 교통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그 때는 전에 서명한 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기관을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를 개최한 결과 상해지부부터 안동현까지 교통할 것을 결정한 사실을 영달한다”라고 하는 인쇄물을 조선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여운형이 일본정부를 향해 동경에 가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말하고 후지타 규코를 동경에 보내고 있는 9월 하순에 그들이 보내고 있는 격문입니다. 이 격문의 결과로서 10월 30일에 안동현에 교통부가 설치됩니다. 그와 동시에 조선에 있는 비밀결사 15단은 결속해서 연통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연통회가 안동현에 설치된 교통부와 연락해서 조선전부에 걸쳐서 관리 일등을 향해 동맹폐점의 격문을 배부하고 학생을 향해 동맹휴교하라고 하는 한편 상공업자에 대해서 동맹파업하라는 문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총독부에 종종 안동현에서 불온문서를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통부가 일반 조선인에게 선동적으로 서면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격한 선전을 하고 불온한 교사를 해서 기독교와 연락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부 설치를 발기한 여운형은 법률상 죄가 아닙니까?

사실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1월 13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가 척식국장관이, 조선총독부가 서면으로 발표한 문서에 의하면 불령이라는 문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매우 부적절하다, 불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질문하였습니다. 총독부의 한 관리가 고가 척식국장관에게 책상 위에 상해임시정부가 만든 독립운동용의 지폐와 폭열탄을 늘어놓고 이것으로 조선에 있는 총독 이하 조선에 있는 일본인을 살해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척식국장관은 폭발은 하지 않는가 라고 말

해 놀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을 사실이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장관을 비롯하여 대신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임시정부가 조헌문란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상 어떠한 범죄 행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아울러 질문 드립니다.

○ 사이토(齋藤) 정부위원

지금의 질문은 매우 많은 항목입니다만, 앞에서 상해에서 조선에 사람을 보낸 것, 그 일에 대해서 1918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령의 효과가 발생한 것은 4월 이후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가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제령에는 누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령은 즉 조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제재이고 국외에 있는 자도 이에 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실하면 지금 언급하신 항목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죄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확실한 증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단정을 저는 내리지 않습니다. 총독부가 발표한 서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경무기관이 발표한 것은 즉 정보입니다. 모든 것을 들은 것도, 풍평도, 소문도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공개해서 사람에게 경계심을 준다고 하는 심정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므로 조금 할애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발표한 것 가운데에서도 잘 조사하지 않으면 사실이 정확한지 아닌지 말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경성 안에 뿌려진 격문에도 이미 이강공(李綱公)의 이름으로 뿌려진 격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들어봐도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격한 의미로 서명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론은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태운다든가 죽인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부분은 모조리 체포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못하고 놓친 자도 많습디만, 이들은 놓쳤더라도 어디까지나 범죄행위가 있는 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발견되면 역시 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가운데 몇 군데 여운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디만,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디만, 저는 본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야마지 조이치(山道襄一) 의원

지금 제령 4월 15일 이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언급한 사건이 조헌문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5일 이후에도 그러한 행동이 많이 있었습디만, 이에 대해서 저는 굳이 추궁하지 않겠습디만, 바라건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속기록을 통해 충분히 회기 중에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총독부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 법률상 죄를 구성하는지 하지 않는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령에 의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해서 다수 공동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고 저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전항의 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선동을 하는 자의 죄도 역시 전항과 같습니다. 본 제령은 제국신민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전에 총독부 경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를 송상하는 국가이므로 이 문장이 얼마나 해(害)를 그들에게 끼칩니까? 이 사실은 매우 양보해서 보더라도 이 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선동을 한 자가 되는데 그 처치는 없었습디

다. 이것은 조선통치 장래의 중대한 문제로 그 통치에 비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본제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사한 후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총리대신이 나오시면 저는 총리대신에게 반드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유감이지만 나오시지 않아서 하나만 조선총독에게 사법권의 발동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지 추궁하지 않았습시다만, 작년에 의화궁(義和宮)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9월 23일 길림에서 만주, 시베리아 있는 불령조선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 '니코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훈춘, 간도 방면에서 모였는데, 그 대회에서 의화궁을 길림에 데려 온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어 25일에 '니코리스크'에서 시베리아인 고문까지 출석해서 이왕을 길림 혹은 시베리아 방면에 데려 온다는 결의를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결의에 의거하여 길림에서 온 강석립(姜錫立)이라는 자가 조선에 들어와서 의화궁의 저택에 수차례 협의해서 11월 15일을 기해서 조선을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경찰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11월 9일 상해에서 온 전협(全協) 등에게 이를 빼앗겨 그가 경찰에 밀고해서 조선총독은 겨우 안동현에서 간발의 차로 의화궁을 되찾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강석립이라는 자는 분명히 조현을 문란한 자인데, 이 자의 처치는 어떻게 하셨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여운형이라는 자에 대해서 그가 만약 조선에 받을 다시 디뎠다면 동경은 별도로 하고 조선에서 즉시 그를 포박하여 규탄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검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관이 있기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운형은 동경을 떠날 때까지 조선을 경유해서 상해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12월 11일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자 정부는 전보를 쳐서 조선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유일선(柳一仙)과 장덕수를 되돌려보내 조선에 오지 않도록 시모노세키에서 즉시 상해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총독이 믿는 것처럼 여운형이라는 자가 개과천선해서 일본을 위해 그가 운동한다고 하면 왜 그를 조선에 보내 불령선인을 감화시키는 것에 힘쓰지 않습니까? 조선의 검찰관이 말했던 것은 12월 5일의 경성일보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여운형이라는 자가 개과천선해서 일본을 위해 자치운동을 한다고 하면 왜 조선에 있는 불령선인 감화를 위해 조선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희망해서 조선에 간다고 하는데 총독부가 시모노세키에서 마치 놓아준 것 같은 것은 앞의 사실과 함께 저는 조선 사법권에 대한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 사이토(齋藤) 정부위원

조금 전 말씀하신 속기록에 대해서 잘 조사해서 답변할 일이 있으면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의 답은 매우 개략적인 답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속기록을 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강공 사건은 밀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었는데, 공작이 성공해서 불려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방으로 손을 써서 신의주 경찰에서 억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이외의 어떤 밀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스스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안립(鄭安立) 사건인데, 이 일에 대해서 잘 조사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의 사건과 함께 답변하기로 합니다. 그 외 무엇이 있었습니까?

○ 야마지 조이치(山道襄一) 의원

여운형을 시모노세키에서 상해로 돌려보낸 일...

○ 사이토(齋藤) 정부위원

총독부에서는 결코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여운형이 조선을 통해 돌아간다고 한 것은 조합교회의 유일선으로부터 들은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로서는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일이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야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진심으로 대답을 부탁해도 제가 생각하는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 이상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으니 다른 날 총리대신이 출석할 때 좀 더 질문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무리하는데 다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총독께 제국호텔에서 행한 여운형의 독립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여러 경과를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총독이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신문을 보고 처음으로 우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피는 바에 의하면, 조선통치상 만약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매우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한 것입니까? 만일을 위해 이것만을 질문 드립니다.

○ 사이토(齋藤) 정부위원

그렇습니다.

○ 야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조선총독부의 예산을 편성한 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점점 질문을 진행하여 조선총독부 예산에 들어갈 때에 질문해 주시면...

○ 야마지 죠이치(山道襄一) 의원

알겠습니다.

○ 주사(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의원)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최합니다.

오후 4시21분 산회.